

들꽃편지 640

2022.5.5. 입학호

<https://cyw.pe.kr> 햇벌같은이야기

선물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백장의 각종 전도지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한 장 짜리 쪽음도 있고 책자 형태로 된 전도지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전도지이지만, 그런데 뭔가 조금씩 부족한 것 같아서 ‘복음’을 충분히 담은 전도지를 만들고 싶어 기도하는 중입니다.

많은 전도지가 전도지를 받는 대상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대순진X회 라는 곳에서 나누어주는 그들의 전도지(?)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쓰인 단어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쓰는 ‘교회 언어’로 만들어진 전도지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매우 생소한 것입니다. 아마도 전도지를 받고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거나 전에 다녔던 사람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최소한 내용은 이해할 수 있게 단어를 풀어서 전달해야 하는데 그런 배려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너무 공포스럽게 묘사한 전도지도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겁을 주면 도망가버리지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하철에서 무서운 얼굴과 사나운 말투로 지옥의 심판에 대해 전하는 이들은 전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문을 닫는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저는 전도지의 제목을 ‘선물’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한 그 놀라운 사랑을 간절히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좋은 전도지를 만들도록 응원해 주세요.



♥새로운 전도지를 만들고 싶은 최용우 올립니다.

□ 느낌



어떤 명분도 평화를 대신할 수 없다.

가장 높으신 어느 분 입에서
선제타격, 사드배치 같은 말이 나왔었다.

정말 무섭다!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이미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른 뒤다.

‘평화’가 지불해야 할 값이 가장 싸대!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꼭지점

산을 오른다, 오를수록
입지는 좁아지고
시야는 넓어진다.
오르고 또 올라
더 오를 데 없는 꼭지점
세상에서 가장 좁은 영토를
겨우 딛고 서면
천지사방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일미진중합시방 一微塵中合十方이라
더 없이 작은 세계로
더 없이 큰 세계가 들어오는 것이다.

바야흐로 거기
산정에 선 사람이여!
먼 길 돌아
별거승이 젓먹이로
온 세상 품에 안고
홀로 선 그대여!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리 너무 무더졌습니다

제가 일하는 아파트 경비는 격일제이기 때문에 24시간을 일합니다. 물론 조금 쉬는 시간도 있고 잠자는 시간도 있지만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 몸에 여기저기 아픈 곳이 나타납니다. 온몸이 다 육신육신 아파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루를 지나 다시 새벽에 출근하면 힘이 생기고 아픈 곳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지? 경비 일이 체질인가?”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비가 즐겁고 재미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책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몸이 아퍼도 힘이 들어도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내가 안 하면 잠시라도 누가 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순찰을 돌고 택배 물품을 정리하고 걸레로 닦고 담배꽂초를 줍고 쓰레기를 치우고 아파트 구석구석 소독하고 화단에 풀을 뽑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오면 몸이 여기저기 아파 옵니다.

목회할 때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무더졌습니다.

교회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입니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예배도 큐티도 묵상도 새벽기도회도 두루몽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안일하여 졌습니다.

생활을 위한 경비 일은 책임감 있게 하는데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게을러졌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셧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저, 괜찮은 것 같네요.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토저 마이티 시리즈 12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232쪽 11,000원 규장 2008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는가,
세상이 던져주는 개평을 받겠는가?

1.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사람들로 부터 칭찬받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쏟아질 비난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한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초연하게 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셨던 가장 거룩한 분의 종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분을 가리켜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는데 하물며 그분의 종인 내가 그깟 비난쯤은 달게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 편에 서려고 하는가?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2. 유다의 사자처럼 원수를 향해 포효하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상 앞에 침묵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저자는 확신한다. 그는 말한다. 우리가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 물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겸손히 감수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그러나 사탄이 그의 뜻에 따라 우리를 괴롭힐 때에는 과감히 그에게 대항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3. 소문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만물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나를 죄인을 부르려 왔노라 (마9:13)

뜻한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봉사한다고 하면서 일에 쫓기고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기에 바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오직 들리는 소문으로만 그분을 알 뿐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분의 선물만을 받는다면 그 선물은 불완전한 것이다. 형제들이여, 이런 저급한 것을 하나님을 깊이 알아 차원 높은 행복을 얻는 것과 감히 비교하지 말자. 제발 하나님을 알라. 멈추지 말고 계속 그분을 알아가라. 그러면 만일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당신의 체험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당당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성경을 설명하는 데 능한 사람이지만, 나는 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주시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체를 사랑합니다.”

4. 난장이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머물지 말라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 복음을 적용하지 않고, 아주 육신적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 복음을 적용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귀퉁이를 이빨로 물고 매달려 있는 저급한 난쟁이 성도들의 수준에 맞춘다는 말이다.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에 물을 타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고칠 수 없다. 영적으로 완전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날마다 그분을 더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영적 난쟁이 수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는 것을 열망하라.

5.언제까지 솜사탕 복음에 만족할 것인가?

왜 우리는 알팍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난쟁이 성도와 육신을 즐겁게 해주려고 애 쓰는 단계에 털썩 주저앉고 마는가?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지만 산꼭대기를 향해 전진하지 않고 오히려 장사꾼처럼 주님을 우리의 뜻대로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기억하라. 하나님과 그분의 대의를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은 고생을 각오해야 한다. 고생하지 않고도 일이 된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다.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영성을 추구할 수는 없다. 조바심이나 고민이나 희생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골짜기와 산꼭대기 사이의 중간에서 멈추어 거기에 텐트를 친 사람이다. 당신이 거듭난 사람이고 당신에게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속한 환경에서 당신과 함께 기꺼이 다시 시작하실 것이다. 설마 당신이 이제까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6.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광신도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있게 마련이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모험에 나서고 싶다는 소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칭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진하려는 모든 시도를 ‘광신’이라고 여기며 거부한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자만에 빠뜨려 그들의 현재 상태에 머물도록 만든다.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신앙의 용사들은 극단적인 사람으로, 심지어 미친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너무나 원만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하는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막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당신에게 복을 주고 당신을 평범한 상태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을 막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일하시게 하라. 그분을 그냥 내버려 두라.”

7.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쟁자들을 제거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경쟁자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놓았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신(神)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쏟는다. 우리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신학을 너무 많이 만들어놓았다. 교회 안에는 불필요한 조직이나 단체가 너무 많다. 우리는 종교적 활동의 과잉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것들에 깔려 죽을 판이다. 우



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기를 거부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도록 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8.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을 십자가의 빛으로 통과하라

사람들이 관정에서 그분께 흥포를 입히고 그분을 때린 짓을 기억하라. 그분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간 사실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끔찍한 여섯 시간 동안 아버지께서 그분께 얼굴을 숨기셨던 것을 기억하라. 골고다 언덕의 어둠과 그분의 영혼이 죽어서 떠나가신 것을 기억하라. 주님은 불멸의 승리와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위해 이런 여정을 통과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인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

9. 내 자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종종 하나님은 성령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 연약함에 시달리도록 하신다. 왜냐하면 옛 성도가 지적했듯이 정신적 십자가와 육체적 십자가가 합해지면 그것이 최상의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못 박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준

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십자가이다. 이것은 언덕이나 교회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아니다. 목걸이에 달랑달랑 매달린 십자가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신을 위해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

10. 자아의 진흙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를 붙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 안으로 초대하실 때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그분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구이언(一口二言)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쏟아버리라. 너를 내게 바쳐라. 너를 비워라. 네 질 그릇을 비워서 내게 가져와라. 어린아이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 자아의 진흙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을 버릴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게서 건짐 받아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될 것이다.

11.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구름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거룩한 불을 알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이렇다. 그것은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사이에 은폐의 구름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 그러면 속박 상태에서 벗어나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기쁨과 확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2 등을 살살 긁어주며 아침하는 자아를 경계하라

평균적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거의 모든 기쁨은 자아가 아침하면서 등을 살살 긁어주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죽기를 거부하는 자아가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의 등을 살살 긁어주고 당신에게 아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라. 우리 자신을 계속 의지한다면, 즉 자신의 훈련과 교육과 재능과 인간적인 판단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우리의 자아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독서일기 ©이재익 목사(일본 니가타교회)

고구마 밥

학교 갔다와 집안이 텅 빈 날
엄마 몰래 정지문 삐거덕 열고 들어가
검은 무쇠솥 손잡이를 어루만지면
온몸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진다.

손잡이 잡고 살며시 솥을 열어보면
모락모락 김이 피어나오는 보리밥.
고구마가 반이 넘는 고구마밥
젓가락으로 푹 찢어보며 ‘한 개 빼 먹어?’

엄마는 발에 나가셨고
이 고구마는 우리 식구 저녁밥이다.
부지깽이로 땅바닥에 그림만 그리다가
정지문 밀고 나오며 고픈 배를 움켜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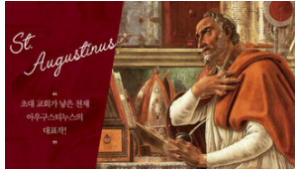
최용우 제8시집<일상의 행복>中



[덧글]

밥 투정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 어린 시절 먹을 것이 없어서 고픈 배를 움켜잡던 기억을 더듬어 쓴 詩. 고구마를 하나 슬쩍 먹고 싶었지만 다른 가족들 생각하며 참았던 애뜻한 기억...

이교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202.누마 왕의 진정한 운명과 제사의 의심스러운 부분

누마 왕에게는 하나님의 어느 예언자나 신성한 천사가 보내진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점(물로 보는 점)에 의지해야 했다. 실상은 정령들이 만들어내는 환영이지만, 물속에 비친 신들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종교의식에 대해 무엇을 만들고 따라야 하는지를 알아내려고 한 것이다.

203.누마 왕과 마귀들의 관계

마귀들은 물점을 비롯한 온갖 수단으로써 누마와 친구가 되어 자신들의 비밀스런 일들을 완전히 밝히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마귀들은 누마에게 죽기 전에 그 책을 불태워 버리게까지는 못했다. 누마의 이 책이 얼마나 해롭고, 참된 신에 대한 예배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이었는지는 원로원이 과감히 그 책을 불태워버린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마귀들과의 교제를 원치 않는 사람은, 마귀들을 숭배하는 위험한 미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마귀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정복하는 참된 종교를 인정할 것을 나는 간절히 바란다.

204.자연철학의 문제는 뛰어난 철학자들과 이야기해야 한다

그들이 '자연적'이라고 부르는 신학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과도 구별 없이 논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과 논해야 한다. 그리고 신적 권위와 진리가 보여주듯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혜라면 참된 철학자 즉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다. 그러나 철학자라는 명칭에 걸맞은 내용 자체가, 그러한 명칭을 자랑하는 모든이들에게 갖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함께 논하기에 알맞은 철학자들을 선택해야 한다.

205.이탈리아, 이오니아 두 가지 철학파

그리스 문화에 관해 철학자들의 두 가지 기원이 전해진다. 하나는 일찍이 마그나 그라이키아라고 불렸던 이탈리아의 한 지역에서 파생한 '이탈리아학파'이다. 또 하나는 그리스로 불리고 있는 지역에 기원을 둔 '이오니아학파'이다. (계속)

임재 (臨在presence)



1.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흩어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 수습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마27:57) 한밤중에 예수에게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했습니다.(요19:39) 그 시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밥을 사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눅24:31) 예수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마24:25)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관계 지향적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 신경에는 ‘관계회로’(relational circuits:RCs)라는 것이 있는데 관계회로는 차단되거나, 연결되거나, 고장 나거나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들의 희망이었던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어 버렸다는 마음이 관계회로를 차단시켜 버려서 눈앞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하고 고개를 가웃거리면서도 설마 예수님일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관계회로’가

연결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예 망가져버린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방언도 가짜고, 치유도, 임재도 심지어 중보기도 조차도 반대하는 글을 기독교신문에 기고하는 유명 신학대학 교수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교수님은 무얼 믿고 무얼 가르치는 것일까요? (7200)

2.하나님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내 안에도 계십니다.(요15:5)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가만히 불려보면 주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건 내 마음의 소리지요.”라고 말합니다. 아직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대상피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상피질이 하는 일은 다른 생각을 가진 두 존재 간에 ‘사고 공유 상태(mutual-mind stste)’를 만들어 하나의 생각을 하게 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 그 생각이 대상피질을 통하여 나의 생각과 ‘생각 공유 상태’가 됩니다. 이 교류는 나의 의식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집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성적으로 계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공유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엡2:10)에서 ‘작품’을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작품’이라는 번역으로는 본래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포이에마에는 소리의 운율뿐만 아니라 생각의 운율도 맞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딱 맞춘다는 뜻입니다. ‘포이에마’는 하나님과 나의 ‘사고 공유의 상태’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꾸 분별하다 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사고 공유 상태’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7201)

3.하나님과 나의 생각 공유 상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점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 ‘사고 공유 상태’가 되면 그 증거로 내 안에 내적 평화 즉, ‘샬롬(평강)’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며 잘 조화된 순조로운 평강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골3:15)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 그냥 대충 내 뜻대로 살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합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사고 공유 상태’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삶이 안 풀리고, 얼굴은 곧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 것처럼 찡그리면서 삽니다.

골로새서3:1-17절은 하나님과의 ‘사고 공유 상태’가 되면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옛 본성을 벗고 새롭게 하나님의 옷(금홍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안내)으로 덧입게 되고, 그것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에 사랑을 더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삶이 ‘샬롬’의 상태가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금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잘 맞추고 있나? 진정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가?’ 하고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7202)

4. 털실뭉치 던지기

서울에 사는 두 딸들이 가끔 엄마이빠가 사는 집에 옵니다. 고속버스가 몹시 막혀서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 어느 날, 큰딸은 집에 들어오더니 인사도 안 하고 다짜고짜 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거실에 큰대자로 누우면서 “아이고, 차 타는 것은 힘들어,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우리 집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저렇게 완전 무장을 해제하고 누울 수 있는 사람은 딸들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절대로 저렇게는 못하죠. 저 아이들은 아내와 땃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배꼽이 그 증거입니다. 아빠와는 혈연으로 묶여 있습니다. 아빠도 ‘최’가이고 아이들도 최가인 것이 그 증거입니다.

털실 뭉치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먼저 한 사람이 한쪽 끝을 잡아 몸에 묶고 털실 뭉치를 상대방에게 던집니다. 상대방이 그걸 잡아 자기 몸에 감고 다시 던집니다. 그렇게 털실 뭉치가 왔다갔다 하면 할수록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실은 많아지고 그것을 모으면 강해져서 나중에는 두 사람을 끊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교류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맺어진 ‘혈연관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교류’가 부족하면 예수님을 만나도 남 같고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겠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털실 뭉치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털실 뭉치를 나에게 다시 던져 주십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과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에 있는 털실 뭉치를 하나님께 던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7203)

5. 비밀번호 입력하기

최근에 세종시에 '세종예술의전당'이 개관을 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 운동 삼아 거기까지 한번 걸어서 가봤습니다. 올해만 36회 공연이 열린다는 각종 깃발들이 펄럭이고 안에서는 뭐가 하는 모양인지 들석들석 하는데 저는 궁금했지만 입장권이 없기에 들어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건물만 한 바퀴 뱅 돌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때나 하나님과의 교류가 쉽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류도 '입장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접속하여 임재 상태가 되면 무궁무진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없으면 접속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임재가 쉽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도를 해 본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뇌는 슬픔, 분노, 두려움, 수치심, 절망, 혐오감 여섯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데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감정들을 일시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 '감사'(shalom)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입장권이며 패스워드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른 여섯가지 감정들이 소멸되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임재 상태가 됩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감사를 찾는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교류의 입구를 쉽게 통과합니다. (7204)

6.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아내가 떡을 잔뜩 한 다음 나누어줄 사람들을 세면서 작은 상자에 일일이 담습니다.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아무개는 안 줘? 가장 먼저 줘야 할 것 같은데."

"줄까 말까 망설이는 중이야. 그는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좋네 나쁘네 하면서 준 사람 기분 나쁘게 하거든."

사람들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인 것처럼 하

나눔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슬픔, 분노, 두려움, 수치심, 절망, 혐오감 여섯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육부정심(六不淨心)을 없애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성령님께 감사의 순간을 떠올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감사의 기억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적어보세요.(이때 감사노트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제가 만들어 교회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감사노트’ 파일 <https://c11.kr/yw05>) 노트를 활용해 감사를 기록해 보는 것은 ‘감사 기도’를 쉽게 하기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말한 다음에 그것이 왜 감사한지를 말합니다. 감사한 것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떠오르지 않는다고 기도하고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감사가 육부정심을 밀어내고 우리의 감정이 감사로 가득 찰 때까지 감사를 계속합니다. 감사 찬송을 계속 불러도 됩니다. (7205)

7.하나님의 마음 느끼보기

나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36세 때 자식 셋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폭팍했겠습니까? 그때 저는 국민학생이었는데 잠결에 어머니의 신세 한탄 노래(?)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래(창)와 기도가 뒤섞인 모노드라마였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웃긴지 숨죽이고 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수 서방님, 저 새끼들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 서방 땔꾸가버렸소오~~ 안 땔꾸 갔다구요? 지가 스스로 왔다구요? 어매, 어매 매정한 낭반... 어떻게 그렇게 상의도 안 해 보고 그냥 가불었소오오오.” 제가 너무 어려서 잘 몰랐지만 어머니는 가끔씩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들은 말씀을 자신의 말로 되뇌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 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되뇌어 봅니다. “그래, 그것이 감사했구나. 그렇게 감사를 표현해 주니 내 마음이 참 좋구나....”

하나님께 드린 감사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반응이라고 느껴지는 생각에 집중을 하다보면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어떤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성경 구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눈물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생각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마귀가 엉뚱한 생각으로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합니다. (7206) ©최용우



(사진:최용우)

한 땀 한 땀의 정성

모처럼 휴식기를 맞이한 아내가 햇볕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한다. 뭘 만드느지는 모르겠지만 '파우치'라고 부르는 무슨 주머니 같은 것을 자주 만든다. 큰 것도 만들고 작은 것도 만들고.. 달려 뒷장을 뜯어서 나름 도면까지 그려가며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다.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저렇게 바느질을 해서 식구들의 옷을 다 만들어 입혔었다. 지금이야 옷을 사 입지 만들어 입는 사람은 없다. 어쨌든 작은 소품들을 만들어서 '핸드 메이드'라 하여 비싸게 파는 것을 보았다.

기계로 매끄럽 하게 만든 상업성 물건들보다 손으로 한땀 한땀 만든 약간 어설픈 손바느질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다.

나도 조르고 즐라서 프린트 땃개 하나 얻었다.

돌덩이

우리 집에 있는 대부분의 돌팽이들은 강원도 정선 생명나무교회 전서월 사모님이 정선에 갈 때마다 하나씩 주신 것들이다. 가리왕산 계곡에서 하나씩 주워 모은 돌들을 방문객들에게 꼭 하나씩 주신다. 나름 '수석'이라고 주신 돌인데... 음.



그런데 저 돌은 출처를 잘 모르겠다. 언제 어떻게 우리 집에 온 돌덩이인지는 모르겠다. 아마 아내가 호도를 깬다고 밖에서 주워온 돌 같기도 하고...

작년에 당근에서 무료로 얻은 의자가 나에게 맞출처럼 딱 맞는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라면 의자에 앉으면 몸이 자꾸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두리번거리다가 저 돌을 발견하였다. 의자 한가운데 놓고 앉으니 몸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스토퍼 역할을 아주 잘 한다.

가끔 방바닥에 '퐁!' 하고 떨어지기는 하지만.

뽕떡

아내가 '뽕떡'을 했다. 장모님이 해마다 집안밖과 공터만 보면 콩 넝쿨을 올려서 농사지은 온갖 종류의 콩이 우리 집 냉장고에 가득 차 있다. 처제나 처남 가족은 콩을 잘 안 먹는다. 그런데 아내는 주는대로 "감사합니다"하고 받아오니 장모님이 "오이고~ 우리 인숙이는 콩을 좋아해. 잘 먹어서 이뻐."하면서 죄다 주신 것이다.



사실은 우리도 콩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다. 밥에 넣어 '콩밥'만들어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콩떡을 하기로 했다. 마침 뽕잎을 따다가 튀어서 가루를 내놓은 '뽕가루'가 있어서 뽕가루를 넣어 색깔을 낸 '뽕떡'을 한 것이다.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용포떡집에서 떡을 해 차로 실어 왔다. 아내가 이번에도 여기저기 나눈다. 세상에 '뽕떡'이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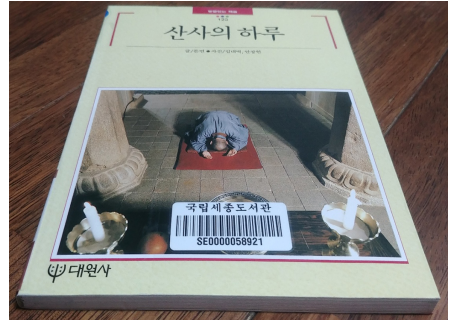
뽕떡은 직접 하지 않으면 어디서 먹어볼 수 없는 신기한 떡이다.

산사의 하루

등산을 하다 보면 유명한 산은 전부 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명한 절을 몇 개씩 품고 있다. 그런데 절에서 스님을 만나는 일은 흔치 않다. 스님들은 도대체 낮에는 어디에 숨어있는 것일까?

잘 모르는 분들은 산속의 스님들은 하는 일도 없이 참 편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 세계도 결코 만만치 않게 바쁘고 빡빡한 세상이다. 절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6시까지 약 3시간은 중, 북, 목탁, 목어 같은 절에 있는 악기들을 죄다 두드리며 요란 시끌벅적한 시간을 보낸다.

작은 암자든 큰 절이든 전국의 모든 절은 거의 똑같은 아침 시간을 보낸다. 울력과 공양(식사)을 마치면 비로소 요사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후부터 관광객이 나 신도들이 절에 오기 때문에 절에서 스님 보기가 힘든 것이다.



명륜진사갈비

아내가 일주일 내내 비살대기에 고기라도 사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먼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옆 동네에 '명륜진사갈비' 식당이 문을 연 것이 생각났다.

점심시간에 맞추어 식당에 갔다. 명륜은 고기만 무한리필이고 나머지는 추가할 때마다 돈도 추가된다.

일반 식당은 고기만 빼고 다른 것은 무한리필이니 거기나 여기나 별 차이가 없다. 고기도 첫 줄만 갈비이고 추가는 목살이다. 세 접시 6쪽 먹고 왔다.

아내가 집에 와서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쌀만 국산이고 나머지는 전부 수입산이라고 한다. 어쨌든 국산 쌀로 한 밥은 맛있었다.

그러고 보니 전에도 한번 갔다가 많이 실망했던 기억이 났다.

야휴~ 그걸 잊고 또 가다니...

도대체 아내의 잃어버린 입맛은 뭘로 찾아 줘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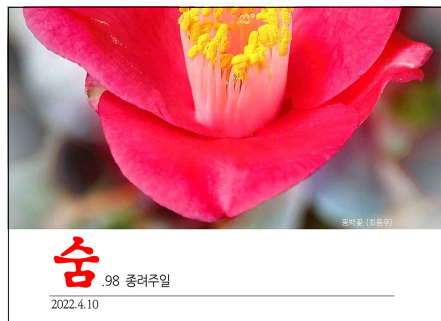
강박관념

강박관념이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생각이나 장면이 떠올라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것인데, 과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어젯밤 주보를 프린터로 뽑아놓고 잠자리에 들면서 한 부 가져와 훑어보니 세상에! 99호인데 숫자를 안 바꾸고 98호로 그냥 뽑았다. 다른 곳은 완벽하게 잘 나왔다. 다시 뽑을까? 하다가 아내가 자는데 프린터를 작동시키면 시끄러울 것 같아 포기했다.

잠을 자다가 잠깐 깼는데 계속 99, 98 숫자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왜 내가 이런 실수를... 살금살금 책방에 와서 주보를 들여다 보다가 결국 스티커로 숫자만 뽑아서 가위로 잘라 98위에 99를 붙였다.

맘에 안 들지만 이 정도로... 문서 편집 만큼은 조금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이거... 강박관념 아닌가?



말대가리와 돼지머리

세계 최대의 고품질 무료 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에 한국적, 기독교적 이미지를 올리는 활동을 3년 만에 다시 시작했다. 픽사베이는 품질평가단 10명에게 '좋아요' 추천을 받아야 사진을 올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진이 채택되는 것이 무척 어렵다.

그 대신 그렇게 골라진 사진이라 퀄리티는 어디에 써도 될 만큼 높다. 저작권 프리(free)라 상업적 용도에 사용해도 되고 출처를 안 밝혀도 된다. 이런 점이 마음에 들어 픽사베이 작가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사진을 검색하다가 말대가리와 말다리를 요리하는 유럽 어느 나라 사진을 보고 기겁을 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사진일 것이다. 유럽인들이 한국에서 돼지 대가리와 족발로 요리를 하는 사진을 보면 기겁하는 것과 같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 인식 차이이다.



단순한 교회

오늘은 우연히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 상가 안에 들어갔다가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있어 뻔뻔히 안을 들여다보고 씩씩한 마음을 감출 길 없었다. 왜냐하면 교회가 크리스탈 강대상에서부터 영화관 안락의자까지 너무 화려하고 고급스러웠다. 붉은 스펀지 분위기가 유럽 어느 부자의 대저택에 온 것 같았다. 욕망으로 가득 찬 캐슬(아파트 이름)에 사는 사람들 눈에 맞춘 것 같았다.

나는 교회가 단순 소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가 고급스럽고 호사스럽게 치장한 모습은 '신앙'이라는 분수를 망각한 채 흥청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풍요로움 속에서는 사람들이 병들기 쉽지만 맑고 밝고 단순함 속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모든 치장 다 빼고 아주 단순무식해야 한다. 누구나 부담 없이 드나들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공간이어야 한다.



연습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연습이다.

하루하루 연습하고 또 반복하여 연습하면서 연습이 실전이고 실전이 연습인 것이 신앙생활이다. 연습은 비슷비슷한 일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한 반복은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수사의 책이 책꽂이에 네 권이나 꽂혀 있다.

같은 책인데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라 번역이 약간씩 다르다. 맨 처음 두란노에서 나온 책을 샀는데 번역이 매끄럽지 못해서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다른 책을 샀는데 이번에는 너무 의역을 해서 내용이 완전히 다른 책 같아 보였다.

어쨌든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읽고 또 읽으면서 로렌스 형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도 경험하기 위해 연습하고 또 하고 있다.

수도자의 삶은 연습하는 삶이다.



태안튠립꽃박람회

가족여행으로 태안세계튠립꽃박람회에 다녀왔다. 좋은이와 밝은이는 서울에서 7시 40분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고, 우리는 세종에서 올라가 11시에 안면도 버스정류장에서 만났다.



아침을 안 먹고 서두른 탓에 꽃박람회장 입구 음식점 포장마차 거리에서 계튀김, 해물파전, 우동, 짜장, 튀김 모듬 군것질 거리로 아침을 먹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꽃들도 바글바글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어서인지 행사장 분위기가 훨씬 살아났다. 꽃 구경 실컷 하고 사진 실컷 찍고 두 시간 돌아다니니 슬슬 지치기 시작. 행사장 밖에 나와 꽃지 해수욕장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며 조개 껍대기를 주웠다.

그렇게 힐링을 하고 집에 올 때는 온 가족이 보령해저터널을 통과해 대천 청양공주를 거쳐서 왔다. 안면도 길에 벚꽃, 오늘이 완전 만개하여서 뜻밖에 벚꽃놀이도 했다.

대화경찰

세종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가는데 버스가 시위대를 피해 노선을 벗어나 뺑 돌 아간다가에 내려서 걸어가는 게 빠르겠다 싶어 버스에서 내렸다. 여러 정부 부처가 모여있는지라 여기저기에서 하루도 빠짐 없이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 200여명이 휠체어를 타고 가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 '대화경찰'이라는 조끼를 입은 수 많은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들고 시위대를 보호하면서 함께 행진하고 있었다. 마이크에서 소리가 안 나자 그것을 고쳐주는 경찰도 있었다. 안전하게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경찰이 몇몇 보였다. 그 옛날 시위를 하다가 경찰 곤봉에 두들겨 맞고 도망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아직도 경찰을 보면 도망가고 싶어지는데, 참 많이 변했다.

그러나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

너그들은 이제 뒤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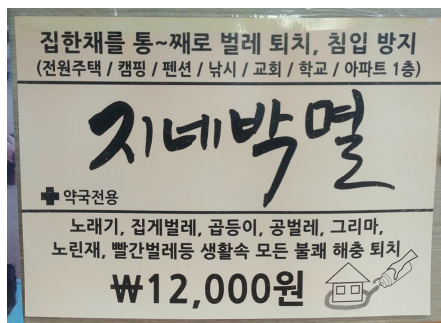
여보여보여보여보여보여보여보여보여보여보여보여보여보여보여보여보여보여보여보!!!

아내의 숨넘어가는 다급한 부름에 후다닥 달려갔더니 아내가 파리채로 손꾸락만 한 지네를 꼭 누르고 빨리 잡으라는 것이었다. 지네는 발이 많아서인가? 발발 발발발발 다니는 것이 무척 빠르다.

재빨리 휴지로 싸서 처리를 했다. 우리 집은 현관문만 열면 바로 마당과 발이 있어서 온갖 벌레들이 맘대로 드나든다. 현관문만 열면 마당과 발이 있는 게 좋아서 이 집을 선택했는데 좋은 점이 있으면 감당 해야 될 다른 어려움이 있는 법!

약국에 갔더니 '지네박멸'이라는 약 광고가 벽에 딱 붙어 있었다.

오호라! 망설임 없이 한 병 사 왔다. 지네! 이제 너그들은 뒤졌쓰~ 이제 우리 집에 출입 금지야! 이제 살고 싶으면 너그덜 집에서 신발이나 빨아. 많은 발로 빨빨거리며 돌아다니지 말고.



아유 정말 빈정 상해서

“아유 정말 빈정 상해서...

안 줘. 그냥 꺼져!”

밖에서 얼쩡거리는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고양이가 하악질을 하면서 경계를 하는 것을 보고 빈정이 상해서 그냥 다시 창문을 닫아버린다.

헨리 나우웬의 글에 매일 아침 갠지스 강둑 큰나무 아래서 묵상하는 노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노인은 묵상을 마치고 마침 떠나려오는 전갈을 구해주려다가 쓰여서 팔이 퉁퉁 부어올랐다. 지나가던 사람이 “여보시오. 노인장, 그 배은망덕한 전갈을 구하려다가 노인장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노인은 대답했다. “친구여, 침을 쏘는 건 전갈의 본성이요. 하지만 그 때문에 전갈을 구해주고자 하는 내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요”

음... 내 본성은 ‘한번 빈정 상하면 안 준다’ 인가 봐.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제549회 비학산236 (일출봉252m) 2022.4.4

▲제550회 비학산237 (일출봉252m) 2022.4.11

▲제551회 비학산238 (일출봉252m) 2022.4.18

▲제552회 바람산(244m)

비학산 정상을 지나 바람재 바람산까지 왕복하니 12km에 3시간 걸렸다. 바람산 정상에는 <이곳은 바람산 정상입니다> 정상목이 새로 만들어져 서 있었다.

그런데 이 산은 원래 어디에서도 이름을 찾을 수 없는 무명봉이였었다. 그래서 거의 10년 전에 내가 바람재 옆에 있는 산이라 <바람산>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뼈꾸리판에 이름을 새겨 걸어 놓았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바람산>이 되었다. 그래서 <바람산>은 내가 이름을 붙인 나의 산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이름 붙인 또 한군데 '비학봉'이 있다.) 산행 중에 두 군데나 엄청 큰 상처를 입은 나무가 있었다. 동물이나 사람이 낸 상처는 아닌 것 같고 무슨 상처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과 줄기는 푸릇푸릇한 모습이 짠했다. 사람이든 나무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2022.4.22.)



▲제553회 비학산239 (일출봉252m) 2022.4.28.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입하 -이제 여름입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보통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반팔 옷을 입기 시작하는 것은 이 즈음에 입하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녹음이 우거지고 농작물과 천지 만물의 풀들과 해충들이 왕성하게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나는 어렸을 때, ‘문 있는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었다. 그때는 화장실을 ‘치간’이라고 했는데 헛간의 한 쪽에 3면만 막아서 만든 푸세식 변소가 대부분이었다.

우연히 어느 집에 양철문 달린 고급 변소에서 일을 보는 데, 4면이 막혀 있다는 그 안정감(?)을 느껴본 후 우리 집 치간에도 문이 달려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집안에 문 달린 화장실이 있는데... 한 번도 화장실 문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은 못 해 본 것 같다. 급하면 그냥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거사를 치루기도 한다. 산책을 하는데 어느 담벼락에 양귀비 한그루가

벽에 뿌리를 박고 자라 꽃이 피어 있었다. 무릎으로 앉아서 사진을 찍는데 어디선가 너무나도 인간적인 향기(?)가 솔솔 나서 담 너머에 푸세식 치간이 있다는 걸 알았다.

③도서출판 소식

주보자료집1-10권(재판) 앞으로는 교보문고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각권 220쪽(컬러) 14000원

57.겨울목상 - 218쪽 13,900원(올컬러) -12월27일 발행!

56.들꽃편지2권 썩부쟁이꽃 - 504쪽 21,200원 -11월30일 출간

55.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예동) - 326쪽 14,600원 -11월5일 출간

54.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저녁밥2 -398쪽 17,300원 -10월15일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51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2.4월 재정결산

2022년 4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종찬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기순 박승현 박신혜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재익 이정옥 이진우 이충실 장기갑 전원준 정효숙 주명혁 지경희 최경자 최상복
한주환 황성운 구글 새벽기도 성실교회 실로암교회 안디옥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총 31분이 1,442,247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 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비 이
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
나님과 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 <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2.5.5일 현재 7224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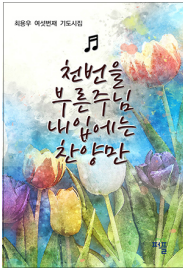
③도서출판 -그동안 57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신학생,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숙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
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
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 와서 편히 쉬
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장소와 동역자와 물질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
하고 있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
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
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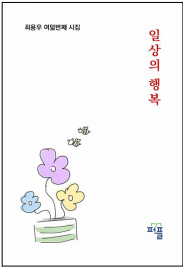
천년을 부른 주님 내 입에는 찬양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처럼 저는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는 시를 일천편 써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34,600원 1044쪽 퍼플



우리 커피한잔 할까요?

한 잔의 커피에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한 가득 담겨있네. 한 잔의 커피에는 쓴맛과 단맛이 나를 사로잡네. 한 잔의 커피에 여유와 자유가 향기로 피어나네. 우리 커피 한 잔 할까요?
11,300원 168쪽(컬러) 퍼플



일상의 행복

오늘 나는 참 잘 살았다. 아무 일 없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입하신 하나님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따라 찾아보는 즐거움과 행복을 단순하게 보여 주는 담백한 시집입니다.
13,600원 210쪽(컬러)퍼플



일출봉에 햇별이 쨍하오

세종시 금남면 용포곶티마을 뒷산 비학산 일출봉을 오를 때마다 한 편씩 시를 썼습니다. 꽃과 별레와 동물과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얘기들이 정겹고 아름다운 시가 되었습니다.
13,600원210쪽(컬러)퍼플



따뜻한 밥상-아침밥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맛질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매일 한 장씩 1년 동안 역대상 11장까지 묵상합니다.
14,100원 400쪽 퍼플



따뜻한 밥상-아침밥2

하룻동안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따뜻한 말솥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거르면 몸이 상하듯 말솥 밥상도 거르면 안 됩니다. 밥 드세요 역대상 12장부터 예언서 전체를 1년 동안 묵상
17,300원 398쪽 퍼플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곶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40호 *발행. 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